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김정훈

저도 그랬지만 요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결혼, 취업을 결정할 때 고민합니다. 신앙심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일 수록 심각하게 이른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가야하는지, 어떤 직장에 지원서를 넣어야 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지에 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 등등 고민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록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수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관한 수 많은 신앙서적이 나와 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지 성경의 지혜를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살펴 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여겨오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비평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 여기에는 어려운 몇가지 철학 신학적 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사주 팔자 운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7-8년 전만 하더라도 사주팔자, 운수, 점 등은 몇몇 대학가 앞에서나 하던 심심풀이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여기면서도 이곳 저곳 음성적으로 찾아 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가나 아예 천막을 쳐 놓고 지하철, 길거리 등 심심치 않게 이러한 운수사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믿는데 도대체 사주팔자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성경에서 점술, 점신 등은 영적인 간음으로 판정하며 심각한 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다른 신이나 귀신에게 무엇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둘째로는 사주팔자나 점술이 기껏해야 확률이 낮은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 신학자들은 점성술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왜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동양사상의 한 부분을 이루는 주역같은 책은 사람과 자연의 법칙을 고찰한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을 후리거나 장사를 합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제가 보기엔 옛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자연의 법칙과 계절의 순환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간과 연관된 철학적 사상으로 발전시키면서 역술이나 점술이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운명도 자연처럼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주팔자나 점술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안고 있는 비인격적 숙명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사주팔자가 맞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 사주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하든 그 사주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인격적 운명이라는 것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가난한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가 될 운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원수로 헤어지며,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안될 운명을 태어난 사람은 사업을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초월적인 인격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초월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주팔자같은 비인격적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지도를 미리 그려 놓고 나는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며 그 밑그림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될 할지도 아시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할 일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하고 의아해집니다. 만일 내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한 사주팔자의 숙명론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보통 신학적 숙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이라 할지라도 숙명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위의 문제는 철학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지식에 관하여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실제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믿는 것이 숙명론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로만 해 두겠습니다. 즉 사주팔자는 비인격적 숙명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믿습니다. 우선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믿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학자들은 이 주제를 연구해 왔고 여기에 몇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간단하게 제시할 수 이론은 단순선지식 (simple foreknowledge)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논리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학적 숙명론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 A. 하나님은 오늘 아침 내가 잔디를 깎을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성)
- B. 나는 잔디를 깎는다. (인간의 자유의지)
- C. 하나님이 내가 잔디 깎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잔디를 깎는 것은 필연적이며 잔디를

짜지 않을 수 없다.

D. 내가 잔디를 깎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었다면 나는 자유의지로 잔디를 깎지 않았다.

위에서 잘못된 논증은 바로 C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잔디 깎을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잔디를 깎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즉 B와 C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아침 잔디를 깎지 않고(B) 개를 산책시킨다(B1)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A도 바뀌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내가 개를 산책시키실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A1)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화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높은 곳 등대에 올라가 배가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배도 보이고 앞에 암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암초를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갈 길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가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단순선지식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변호될만하며 숙명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학적인 추론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D.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계시다.

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F.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

G.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험적으로 우리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간증을 듣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같은 경우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며 이사야 30장 20~21절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 베드로, 요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예로 보여 집니다. 즉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수지는 지금 27살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하고 교회도 가끔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수지와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결혼할 것을 기대하는것 같습니다. 수진도 이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지가 어느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가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만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신앙심도 별로 없어 보여서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 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가 이 남자를 살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지요?

B. 삼열 집사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남자는 신앙심이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 주변에 이웃이 다니는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몇 있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건강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이 집사님은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뭔가 확실한 싸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인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합니다.

C. 기숙이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적성검사나 성격검사를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선생님 직업이 항상 가장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로 가야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사람들도 선생님을 하면 잘하겠다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상급생이 되니 학교 공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성적은 점점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 과연 사범대학이나 교대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도 막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전 교회에서 주관한 수련회에 다녀와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에 오신 강사는 선교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시면서 모두 다 선교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숙이도 얼떨결에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좋아하고 되고 싶은 선생님보다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려운 길이니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좁고 힘든 길을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 정훈씨는 요즘 헛갈립니다. 정훈씨 부모님이 오래 전에 정훈씨가 목회자가 되도록 서원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적성에 맞지 않아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신학교 담당 교수님도 그 당시에는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세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돈을 벌다가 그만 IMF의 여파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다녀 보고, 조 언도 구하고, 금식기도, 성경 통독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헛갈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훈씨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터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과연 어머니의 서원기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마흔이 가까워 오는 지금이라도 목회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위의 예화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해 보기도 한 경우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놓칠까봐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초조해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 자체가 신학적으로 석연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하면 그분의 의도, 섭리, 비전, 계획 등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보통 세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주권적 섭리입니다. 우주 안에 일어 나고 있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칭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씁니다.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며 아무도 이것을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는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창조, 구원 같은 사건이 이 뜻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도덕적인 명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성경에 계시된 도덕적 원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에는 주로 이러한 도덕적 명령을 준행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생지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독특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상적이고 상세한 삶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는 위의 세가지를 다 가리키지만 특별히 세 번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을 방해하거나 거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발생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우리에게 충분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여러분의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가 길을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듯이 여러 가지 싸인들을 잘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도덕적인 한계가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도적질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여시면 다른 쪽 문을 닫으신다는 표현도 씁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성령의 평안을 느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증거 중에 하나 일수 있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내적으로 뭔가 불안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과 달라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언제나 상식을 무시하도록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싸인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양털몽치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싸인을 구할 때 양털몽치를 가지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이야 어떻게 종종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하나님께 한번 초자연적인 싸인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보라는 혹은 그렇게 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더라는 간증 등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위의 표지판들 사이에 뭔가 일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맡기시는 구절에서 뭔가 감동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래 전부터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조언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두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A대학이나 B대학이나 결정할 때 A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면 A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A대학에 떨어졌다면 B대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표지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해보라는 말을 하거나 들은 경험이 한두번쯤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책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이 과연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옳은 방법인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은 주로 성경적인 사건에서 유추해 낸 원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것이 원리적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뜻을 특정한 개인에게 알려실 때에는 직접적이면서 초월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이나, 바울의 회심사건을 비롯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인도하는 사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과정 등은 모두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직접 계시하신 사건들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든 특정한 방법이었던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로 나타나지 결코 원리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한 사건을 우리는 원리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발견해야 한다고 원리적으로 제시합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위에 인용된 말씀에 나오는 길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율법 혹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등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덕적 뜻 안에 결정을 할 때 행동하게 되며 (잠언, 시편 등의 지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도 하며 (이사야),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로마서 12장이 후를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내용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은사 사용이나, 정부에 대한 태도, 서로 용납함, 예배 등에 적용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등 도덕적인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외라고 할 수 있다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건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도록 원리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라고 권고내지는 원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상이나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을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나의 일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없는 데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려 한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온갖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내적인 인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과연 어떻게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은 주관적 인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인상은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하며 공개적으로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의존하게 되

면 실제적으로 나의 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아니라 그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사람, 집단, 사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쉽게 벗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설령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고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진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신학적 숙명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관한 신학적인 논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계시다.

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F.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

G.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D, E, F는 각각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D와 E를 동시에 믿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와 F를 믿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E와 F를 믿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숙명론에 묶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선한 계획을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D, E, F를 한꺼번에 믿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되지 않는 명제들을 한꺼번에 믿는다는 것에는 어떤 논리적 혹은 실재적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는 이 세가지 명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실재적 필연성을 만들어 냅니다. G명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어디서 만들어 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알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학적 숙명론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다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밝혀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암시하거나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선한 계획)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의 도덕적인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구체적인 인생의 청사진까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적인 이유에서 전통적인 방법은 취약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써서 만일 결과가 좋거나 성공하면 문제없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실패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명해야하는 이중의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했는데 바로 그 사업이 망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낫고 좋은 것을 위한 큰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의 그 확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혹은 앞으로 그러한 확신이 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에 덧붙여 전통적인 방법은 동등한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중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가져다 줍니다. A회사와 B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었는데 둘 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어떤 회사에 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만일 하나님은 A회사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B회사를 선택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사람을 불필요한 초초함으로 몰아 넣어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만 적용을 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다가 결혼, 취업, 진학 등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특별하게 적용해야 되는 방법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믿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차이를 있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 사이에 판단 과정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못된 이원론적 영성으로 흐르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차마시는 것과 성경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적거나 덜 영적인 행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동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모두 다 우리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영적인 행위라고 배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믿으면서 내가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봐야 하는지와 어느 직장에 원서를 넣어야 하는지를 각각 다른 결정과정으로 결정한다면, 다시 말해 앞에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고 뒤에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 써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제적인 이유에서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점을 찍어 놓으시고 그 점을 찾으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인 뜻인가,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등등의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정과정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뜻을 찾아내고 확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 다시 말해 성경, 영적 상담, 개인적 소망, 환경, 내적인 인상 등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모색하는 것이 바른 목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과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도 않고 미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닙

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충분할 만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경계선이며 그 안에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면 전통적인 방법보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초조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미성숙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사소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 사이에 일관적으로 영적인 합리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결혼, 직업, 진로, 교회 등)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어느 특정 선교단체나 교회의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등을 신앙생활이나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결국 성경이라는 확실한 원리 제공자를 떠나 성경 외에 것을 따로 기준으로 세우는 연약한 기반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을 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전통적인 방법을 성경적, 신학적, 실제로 비판했지만 저는 그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며 또 교회의 사역에 다양한 면에서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 요지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자유를 주는 성경적인 지혜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가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오히려 검증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방법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나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영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선택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동등하게 여러 대안이 제시될 때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오직 그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로 보면 모든 대안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대안이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지 못해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수집, 평가하고 생각하며 적절한 근거를 찾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스스로 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충분히 계시 되었고 또 지혜를 사용해서 영적합리성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수단도 주셨다면 굳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온갖 주관주의적인 방법보다 탁월합니다. 흔히들 '성령의 인도하심'하면 무슨 특별한 내적인 주관적 인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닫는 것을 주로 말할

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옆에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성경, 상황, 상담, 내적인상, 관계, 싸인 등)들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대신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린 아이의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지성과 성령님도 주셔서 그 분의 뜻을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내린 결정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결정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확신과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의 길을 통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